

두 가지 모순

지난 '4주 제자학교' 마지막 시간에 우리는 전도와 선교에 대한 우리의 자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대화 중에 우리 모두가 범하고 있는 두 가지의 모순이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 모순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많은 교회들이 단기 선교 여행을 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선교지 혹은 해외에 있는 선교지에 찾아가서 봉사 활동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단기 선교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여비를 각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기 선교에 참여하자면 적지 않은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희생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 여행에 참여하는 이유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함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먼 나라에 가기 위해 적지 않은 돈과 시간을 기꺼이 희생할 자세가 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서도 그렇게 해야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혹은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려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단기 선교에는 많은 돈과 시간을 희생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오는 순간 선교적 열정을 내려 놓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할 열정은 있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는 무심하다면, 이만 저만한 모순이 아닙니다.

두 번째 모순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자리에서 참여자들은 "어떻게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을까?"를 두고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그에 대한 한 방법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찾아 친구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무심코 살다 보면 믿는 사람들과만 지내는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내 주변에는 모두 믿는 사람 뿐입니다"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렇다면 믿지 않는 사람을 찾아 친구가 되고 인격적인 사귀를 나누어 복음을 전하도록 노력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중에 어느 교우께서 우리가 범하고 있는 또 다른 모순 하나를 지적하셨습니다. "교회로 모였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바깥에 나가서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교회 안에서 서로 인사를 주고 받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 말씀에 모두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교회로 모였을 때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지 못한다면, 바깥에 나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 전도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니, 교회로 모여 서로 인사를 나누고 사귀는 것이 전도를 위한 준비 훈련이라는 사실을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교회로 모여 누구와 만나시고 누구와 인사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다가와 말 걸어 주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낯선 교우를 찾아가 인사를 나눠 보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면 우리 교회를 찾는 분들이 정착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며 또한 바깥에서 낯선 사람을 만나 사귀 수 있도록 훈련될 것입니다.

Merry and Happy Christmas!

2018년 12월 23일 주일설교

“진실로 믿는가?” Do You Truly Believe?

- 찬송** 찬송을 부르며 시작합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122장(통122)
- 기도** 한 사람이 대표로 기도합니다.
- 성경봉독** 누가복음 1장 전체를 돌아가며 읽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 말씀묵상** 한 사람이 설교 말씀을 요약하여 발표합니다. (10분)
- 말씀나눔**
- 한 질문에 대해 15분 정도를 할애하십시오.
 - 전체 나눔 시간이 90분을 넘지 않게 하십시오.
1. 오늘의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으면 한가지만 나누어 주십시오.
 2. 예수님의 탄생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성탄절을 축하해야 하는 '당신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3. 예수님의 탄생이 의미하는 세 가지를 당신의 말로 요약해 보십시오. 그 세 가지 사실에 대한 당신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4. 당신의 믿음은 당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인해 일어난 변화가 있다면 나누어 주십시오.
- 기도**
1.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을 구하십시오.
 2.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기도하십시오.
- 증보기도**
1.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합심으로 증보하십시오.
 2. 지원하는 선교지와 선교사의 소식을 나누고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 찬송/헌금** 찬송을 부르며 헌금을 드립니다.
“신자되기 원합니다” 463장(통518)
- 격려와기도** 마지막 속회 모임일 경우, 서로에게 감사를 표하고, 각자 새로 배정된 속회에서 제자로 자라는 일을 돕도록 격려하고 기도하십시오.
- 주기도문** 광고 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난 설교문이 필요하신 분은 교회 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묵상 안내
www.koinonia2018.com

수요예배

12월 26일 수요예배는 쉽니다.

수요예배를 위해 간단한 준비와 정리를 도와주실 봉사자를 찾습니다. 문의: 유성현 목사

사역자 연락처

직책	이름	전화	이메일
담임목사	김영봉	703-850-9447	bong320@gmail.com
부목사	유성현	805-843-9167	karis10120826@gmail.com
영어권 담당목사	Danny Chung 대니정	213-210-4057	dannychung50@gmail.com
어린이 담당 디렉터	Alex Kim 알렉스김	571-201-0701	munkyong@hotmail.com
English Worship Pastor	HK Kim 김형균	703-346-0001	hkkim122@gmail.com
사무행정	윤문경	703-944-7827	dalpool@hotmail.com

- '전교인 신약일독' 이번 주 진도는 **요한계시록 18-22장** 및 **시편 53편**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신약일독 진도에 따라 '하루 한 시간'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영적 훈련을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www.koinonia2018.com**에 접속하시면 매일 읽을 본문에 대한 간략한 묵상 가이드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오늘은 성탄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여 특별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 오늘 예배 후에 2019년도 달력과 헌금봉투를 새로운 속장을 통해 찾아 가시기 바랍니다. 속회에 소속되지 않은 교우들께서는 안내 위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9년도 매일 묵상을 위한 '하루 한 말씀' 진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새해부터는 koinonia2019.com을 통해 묵상을 위한 안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CUMC의 성탄 전야 예배로 인해 우리 교회는 성탄 전야에 모이지 않습니다. 대신 성탄일(25일) 오전 11시에 본당에서 온 교인 합동으로 예배 드립니다(이중언어).
- 26일(수)부터 29일(토)까지 매릴랜드의 Sandy Cove 수양관에서 Youth를 위한 연합 수양회로 모입니다. 자녀들의 믿음과 안전한 여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가 학생: 25명, 카운슬러와 스태프: 14명
26일(수) 오후 1시 15분 교회 주차장 집합
29일(토) 오후 4시 교회 도착 예정
준비물: 성경, 펜, 노트북, 따뜻한 옷 (슬리핑백은 필요 없음)
지참하지 말 것들: 전자 기기
- 교회를 통해 묘지를 구입하기로 신청하신 분들은 다음 주일까지 묘지 대금을 납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31일(월) 오후 8시에 본당에서 전교인 합동으로 '송구영신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후에는 안수례도 있습니다. 기도로써 새해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 1월 1일(화), 2일(수), 3일(목) 오후 8시에 새해 맞이 기도회로 모입니다. 1일은 자녀들과 함께 모입니다. 새벽기도회는 모이지 않습니다.
- 26일 수요일 저녁 예배는 모이지 않습니다.
- 2019년부터는 도서부가 매월 둘째 주일과 넷째주일에 운영을 합니다. 2019년 1월 13일에 신간도서를 구비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빌려가신 도서는 1월 13일에 반납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목회자 동정
김영봉, 류성현 목사: 버지니아 연회 아시안 목회자 가족 수양회 참석(26일-28일)
대니정 목사: The Message Retreat 참가(26일-29일)

- 교우 모두가 '삼중 사귄'(Triple Communion)에 있어서 깊어지도록
- 센터빌연합감리교회, 와싱턴한인교회 그리고 체스터브룩연합감리교회를 위해
-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해: 멕시코(김승석 선교사), 남아공(장용석/강준이 선교사), 탄자니아(박윤석 선교사), 쿠바(전구 선교사)
- 육신의 질병 혹은 영적 침체를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
- 연합감리교회의 부흥과 갱신을 위해, Lewis 감독님을 위해
- 한국과 미국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 새로 편성된 속회를 위해

주일예배

- **한어 성인예배(KS)**
오후 2시 / 본당
중보기도: 오후 1시 20분 / 208호
- **Youth & ES**
오후 2시 / ROC
- **어린이 (Children)**
오후 2시 / 213-215호

수요일예배
수요일 저녁 8시 / 본당

새벽기도회
토요일 오전 6시 / 본당
다른 요일은 개인 기도로 대신합니다

제자반

- **4050 남성제자반**(인도: 김영봉) 중강
- **여성성경필사나눔반**(인도: 도현주) 중강
- **성경의 맥**(인도: 정명림)/ 중강
- **에바다 성경모임**(인도: 기수양) 금요일 저녁 7시 30분 기수양 교우택

12월 신약일독진도 (www.koinonia2018.com에서 묵상안내를 보실 수 있습니다.)

24일(월)	25일(화)	26일(수)	27일(목)	28일(금)	29일(토)
요한계시록 18장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2장	시편 53편

주일 친교

날짜	담당속회
오늘	햇빛속
12월 30일	CS속

회중기도와 성경봉독

날짜	회중기도	성경봉독
12월 30일	김혜진	이애란
1월 6일	정명림	성호진
1월 13일	김상백	배영주
1월 20일		원태민

안내와 헌금 위원

12월 - 김정한/김미연
1월 - 김유호/전정희

(12월16일)

한어성인예배(KS)	174	주일학교	\$107.44
영어예배(ES)	20	주일헌금	\$115
청소년예배(Youth)	30	주정/월정	\$4,760
교회학교(Sunday School)	24	십일조	\$4,605.27
주일예배 출석 합계	248	선교헌금	\$1,242
		감사헌금	\$100
수요일예배(12/12)	28	UFO/기타	380
주간예배 출석 합계:	276	합계:	\$11,309.71

2018년 12월 23일 | 대림절 넷째 주일 성탄감사주일 본당 / 2:00pm

사회: 유성현 목사 피아노: 이애령 / 오르간: 김성은

전주 Prelude		오르간
촛불 점화 Lighting the Candles		말은이
● 경배 찬송 Hymn of Invocation	“하늘에 계신” 635장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다같이
대림절 촛불 점화 Lighting the Advent Candles		말은이
● 예배에의 부름 Call to Worship		다같이
● 개회 찬송 Hymn of Praise	“참 반가운 성도여” 122장 O, Come, All Ye Faithful	다같이
● 신앙 고백 Confession of Faith	니케아신경	다같이
회중 기도 Congregational Prayer		조용석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누가복음 1장 46-56절 Luke 1:46-56	공효선
찬양 Anthem	할렐루야	성가대
설교 Sermon	“진실로 믿는가?” Do You Truly Believe?	김영봉 목사
응답의 기도 Prayer of Reflection		다같이
특별찬양 Special Anthem	오 거룩한 밤	최인달
● 송영과 봉헌 Doxology & Offering	“이 천지간 만물들아” 5장(통3) Praise God from Whom All Blessings Flow	다같이
목회 기도 Pastoral Prayer		김영봉 목사
● 결단의 찬송 Hymn of Commitment	“신자되기 원합니다” 463장(통518) Lord, I Want to be a Christian	다같이
● 축도 Benediction		김영봉 목사
인사와 광고 Greeting & Announcements		김영봉 목사

“Sanctuary”

- 표에서는 일어설 수 있는 분들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up as you are able.
헌금은 예배당 안에 있는 헌금접시에 드리십시오.
Please place your offering into the trays in the chapel.